

LIBRARY EPISODE

운영체 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 상림마을작은도서관 | 녹번만화도서관

2019. 겨울 Vol.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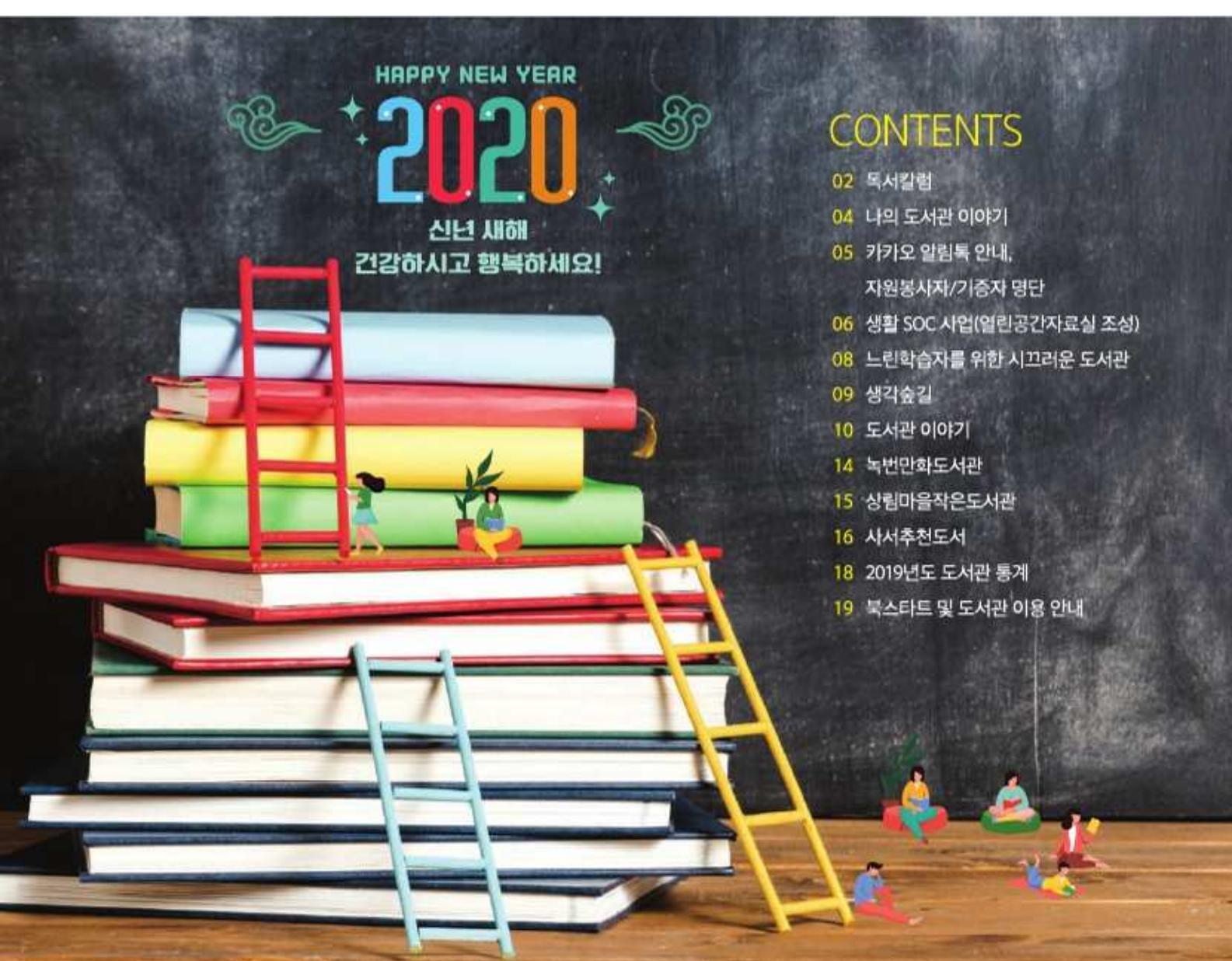
HAPPY NEW YEAR

2020

신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CONTENTS

- 02 독서칼럼
- 04 나의 도서관 이야기
- 05 키카오 알림톡 안내,
자원봉사자/기증자 명단
- 06 생활 SOC 사업(열린공간자료실 조성)
- 08 노인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 09 생각숲길
- 10 도서관 이야기
- 14 녹번만화도서관
- 15 상림마을작은도서관
- 16 사서추천도서
- 18 2019년도 도서관 통계
- 19 북스타트 및 도서관 이용 안내



청소년을 위한 독서칼럼

내 옷장 속의 책들



김홍기

패션 큐레이터. 패션을 예술과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한 전시들을 기획해왔다. 저서로는『옷장 속 인문학』,『샤넬 미술관에 가다』 등이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칼럼 제10회>

웃은 책이다

저는 패션을 미술관에 전시하는 일을 하는 큐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한 벌의 옷을 가지고 저는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옷에 담긴 '근사한'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낸답니다. 옷이 무슨 그림이나 조각도 아닌데, 이야기가 되냐고 말할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옷은 추운 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 주고, 때로는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 주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죠. 옷은 '나란 누구 인가'를 설명하는 꽤 좋은 단서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누군가가 입은 옷을 가지고 탐정처럼 조목조목 따져 보며, 그에 대해 알 수 있다면 흥미롭지 않을까요? 이때 바로 옷은 입는 사물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한 권의 책이 되죠. 오늘은 제가 옷을 책처럼 읽기 다가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들려주고 싶어요.

혼자 읽는 책은 맛있다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선 보통 미술사를 공부해야 한답니다. 저처럼 패션을 전시하려면 전문적으로 패션 공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학위가 없어요. 스스로 독학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학문 기관에서 학위를 받아온 이들에게 기가 죽어 본 적이 없어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폭넓게 책을 써왔어요. 혼자 공부해 왔기에 누군가의 권위나 목소리에 놀랄 필요가 없었고, 읽고 공부한 내용에 소신껏 제 생각을 입혀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제가 기획하는 모든 패션 전시에도 그대로 묻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독학을 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책 읽기와 일과 꿈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연결해,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서, 책에서 유효한 내용을 얻는 읽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기

먼저 다독에 얹매이지 마세요. 책은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책을 골라야 해요. 학년별 고전 리스트는 있으세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동양 필수 고전 리스트를 보면, 이걸 추천한 사람은 과연 이 책을 다 읽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답니다. 물론 고전을 읽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은 읽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고 진가는 내 안에서 발효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요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죠. 바로 영감을 주는 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다독을 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세 번 이상 읽는 게 나아요. 특히 어떤 분야에 막 들어섰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모은 책일수록 여러 번을 읽어야 해요. 저의 경우에는 서양 패션의 역사를 다룬 책 중, 가장 정평이 있는 한 권의 책을 골라서 20번 정도 읽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은, 읽을수록 처음에는 '이해한 줄 알고' 넘어갔던 문장이 다시 보이고, 뜻이 이해되더란 것인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일은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매번 읽을 때마다, 내가 꿈꾸고 공부해야 할 것들의 테두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지식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하게 보일 겁니다.

책이 입는 옷에 대하여

독차를 영어로 Contents(콘텐츠)라고 하죠. 목차는 책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줘요. 한마디로 '공부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되어 주죠. 목차를 한 번의 옷에 비유하면, 내가 입을 옷이 얼마나 튼튼한 재료와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거예요. 목차가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온다면, 그 옷은 입을 만하다는 거죠. 원래 전문가가 되려면 같은 분야의 새로운 책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데, 전공 분야를 다른 책들은 저자마다 자기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부터 있던 생각을 반복해서 책에 적어 놔요. 쉽게 말해서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서 둘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새로운 저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생각과 논리' 부분만 목차에서 찾아 그 부분만 읽어 보면 돼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정보를 얻는 시간을 확 줄여 주는 것이죠. 읊가을에는 한 권의 책을 골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그때 그때의 맛이 다를 거예요.



나의 도서관 이야기

"나를 위한 푸드테라피
(Food Therapy)"

시간을 참여하면서...

이용자 김○○
2019.10.31



감나무에 가들이 주렁주렁 주홍빛으로 익어갈 무렵, 은평구립도서관에서 마련한 시간 "나를 위한 푸드테라피"에 참여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 글을 남겨봅니다.

영유아 아기를 둔 엄마이다보니 그동안 나를 위한 시간이기보다는 아기, 남편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시간 속에 허덕이면서 시간을 지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것도 푸드(음식)으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신 푸드테라피 선생님의 작은 배려안에 너무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을 얻어갑니다.

시작하면서 직접 담그신 달콤새콤한 차로 마음을 달래주시고 이제 나의 이름 석자보다 "00엄마"라고 불러지기 쉽상인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나의 이름을 푸드로 예쁘게 꾸며보면서 심플하고 아름다운 나의 미적 감각을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신 푸드박스는 내가 직접 완성한 푸드로 채워졌는데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샐러드부터 마카롱까지 4가지 음식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 마무리하는 시간쯤에는 시(詩)로 심금을 울려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김춘수 꽃*이란 시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꽃이고 싶고, 누구든지 특별히 사랑하는 이에겐 더욱 그럴꺼라 생각이 듭니다.

실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이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좋은 수업 안에서 인연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큰 선물을 받아가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들려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좋은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추억 모집

은평구립도서관과 함께했던 추억을 나눠주세요!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후기, 자원봉사활동, 직원들과의 추억, 바라는 점, 독후감 등 책, 도서관과 관련하여 나와 은평구립도서관의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익명으로 도 좋고, 편지, 사진 등 어떠한 방식이든 환영합니다.

* 추억을 나눠주신 분들께는 소소한 이벤트가 있으며, 추첨을 통하여 다음 소식지 제작 시 게재해드릴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 간 2020년 1월 ~ 6월
대 상 은평구립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보내주실 곳 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여게시판
문 의 02.385.1671 (내선 5)
발 표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 통보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2019년 6월 ~ 11월) 총 249명

강경현 강민설 강민주 강준서 강준원 고현 공서린 과지섭 꽈원영 꿈탁찬
김강민 김경호 김기애 김나은 김다빈 김도연 김도영 김도윤 김도훈 김동환
김민영 김민재 김민화 김성래 김성민 김세현 김승준 김승희 김영한 김예랑
김예린 김예지 김용현 김윤상 김은지 김은혁 김은혜 김정민 김종인 김종협
김주영 김준규 김준행 김지민 김지모 김진성 김진우 김태안 김태이 김태훈
김하림 김하민 김현규 김현빈 김현서 김현진 김현우 나혁준 남궁철
남다현 남선진 남지민 남현우 노경환 모영진 문여리 문승현 문영현 문장빈
문정석 문태준 민혜림 박동민 박민서 박소희 박수연 박예온 박은선 박은숙
박인숙 박재근 박중현 박준호 박중진 박지민 박지원 박찬원 박재빈
박재원 박재연 박현일 박형근 박희운 배경준 배성재 배원기 배진희 백시현
백인원 백장현 백지운 백해준 변상준 서민성 서상원 서유리 서은빈 서주연
서치원 손민우 송민규 송수빈 신재호 신진혁 신현규 안정민 안효준 양이진
어선우 엄규빈 오승혁 오무진 우선우 우성우 우시우 우지운 우현일 원동하
유인재 유정호 유준혁 유찬종 윤민서 윤승섭 윤예빈 윤예온 윤지민 이기현
이건영 이기연 이다영 이대간 이동민 이동훈 이명훈 이민혁 이봉현 이상석
이상연 이상택 이새온 이샛별 이상준 이승민 이승우 이승주 이승준 이승한
이승혁 이승현 이예국 이예온 이예준 이예진 이우진 이원형 이유민 이은상
이재원 이재준 이재혁 이재희 이정민 이준석 이준호 이지민 이재원 이태양
이태우 이하경 이하은 이학재 이한규 이현식 이현재 이현주 이해영 임민주
임보경 임승희 임유진 임은재 임준섭 임준우 정경근 정서인 정은기 정은지
장인영 정지운 정홍민 정민규 정상엽 정세진 정승우 정은희 정재숙 정준호
정한진 정혜립 정회찬 조준준 조상혁 조서영 조은지 조재민 조하은 조해성
조향우 주무영 자윤아 지태웅 지원아 차민수 차준혁 최대영 최민지 최보경
최서영 최수영 최승진 최무석 최은영 최준호 최진석 하웅기 한경서 한아연
허승미 허승혁 황금정 황리팀 황서진 황심연 황연수 황찬호 황해창

* 자원봉사를 해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하우와 분분 마음
속에 계제하겠습니다.

도서 기증자(기관) (2019년 6월 ~ 11월) 총 71기관

19세기발전소 강남기획 공정거래위원회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국가기술포럼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생태원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대학교 교사자료위원회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총보담당관
국세청 기획재정부 김천국기념사업회 끈크리에이티브 뉴스미디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동방성장연구소 동원그룹 매거진 지하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박斗진문화관 백범김구기념관 킴원행정처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사관찬위원회 부영그룹 북극곰 사단법인 회랑 도래미 서울디敛서울역사관 창원시
선학평화상 사무국 송신건강 실증마동진물기관 아람에마리트 대사관 영종도서관 예수살이공동체 모뚜기 홍보실을재 월영사 유기선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
은평구청 이유출판 제이앤씨 주한트리뷴아대사관 진주시청 공보관실 홍보팀 청계천 박물관 청도박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 파주시 중앙도서관 편경한의원
푸른동대 한국장학재단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 아카데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언어학회 아카데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재단 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한성백제박물관 헤드림출판사
* 상기 기관 외에 익명으로 기증해주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온평구립도서관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실시

내가 빌린 도서의 대출 예약 등의 내용을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림톡 도착



온평구립도서관과 플러스 친구 맛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 온평구립도서관 플러스친구 등록방법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탭에 '온평구립도서관' 검색
3. 친구추가(아이콘) 클릭
4.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평구립도서관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 기존의 문자(SMS)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알림톡 수신 시 험프트 가단계를 눌러 주세요.



도서 기증자(개인) (2019년 6월 ~ 11월) 총 18명

고석주 김종진 김현희 도상철 박수옥 박진용 박춘민
방민 신민철 윤수영 이명식 이병진 이상철 이원영
장지형 정숙영 정윤숙 한인숙



생활밀착형 SOC 사업

(열린공간자료실 조성)

도심 속 자연을 품은 도서관이라는 모티브가 된 은평구립 도서관은 2001년 개관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지어져 도서관 안과 밖의 구별이 없고 지붕과 담도 없는 형태를 품고 있다. 책을 읽는 도서관 본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건물 중앙에 위치해 하늘을 비추는 '반영정' 뒷산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석교' 석양을 응시하는 야외 휴식처 '응석대' 등 전국에서 가장 정서적, 시각적 공감과 서정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고의 휴식처'이자 지역의 대표 문화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도서관이다.



도서관 전경

그러나 개관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의 인테리어는 노후화되고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저장과 공유기능의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는 복합문화센터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의 개념은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에서 '건축적 산책'이라는 광재환 건축가의 건축개념을 인테리어에도 접목시켜, 경계를 허물고 융합, 통합의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하였다.



석교



응석대



반영정



기존 디지털자료실, 복도(휴게라운지), 정기간행물자료실을 수평적 동선을 기준으로 동선을 따라 여러 활동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의 사용에 따라 정의되는 “크리에이티브” 한 공간을 연출하여 하나의 “열린 공간자료실”을 계획하였다.

공간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 서가, 책상, 파티션을 결합하여 가구를 구성하고, 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선형의 공간이 무한히 확장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마치 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산책을 하다보면 디지털자료코너를 이용하는 공간, 정보공유공간, 정기간행물을 볼 수 있는 공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열린공간자료실은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층이 합정되어있는 벽을 허물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캐너, 국회원문, 프린트식이용은 기존과 이용이 동일하다. 노트북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열린공간자료실을 이용하면 되나 장시간 학습을 원하는 이용자는 3층 제1열람실에서 이용하면 된다. 유선으로 사용했던 노트북은 전 좌석 wifi를 이용하여 한층 편리하게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발달장애인과 경계선급 지적장애인(이하 '느린학습자'로 명시)이 도서관에 별길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심리적, 물리적 이유에서다. 심리적 요인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보호자에게 '자제시키라'고 요청하는 주변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꼽힌다. 시설이 낙후된 장애인 자료실과 부족한 느린 학습자용 도서 및 프로그램 등도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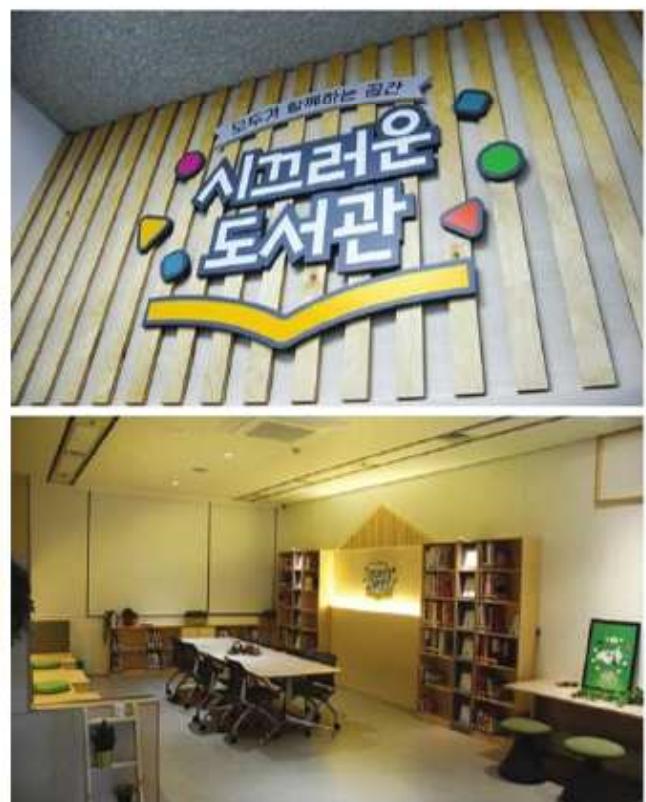
도서관은 신체적 장애, 교육 정도, 소득 수준 등 개인의 차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사업은 은평구, 송파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 6개의 도서관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간 조성과 서비스 개선 준비를 마쳤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특수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도서관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인지능력과 문해력, 집중력을 고려한 전용 도서를 구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느린 학습자 전용 독서 공간 구성 등 느린학습자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에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라는 정책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정보격차현상을 해소하고 도서관에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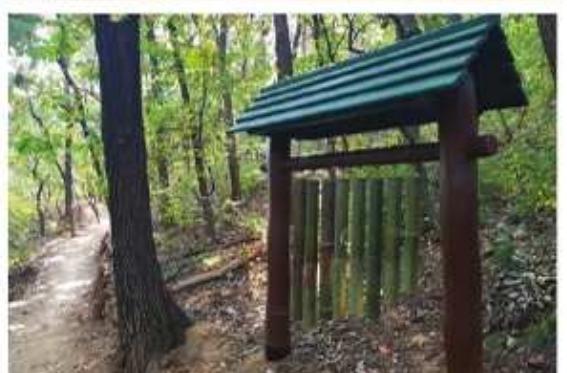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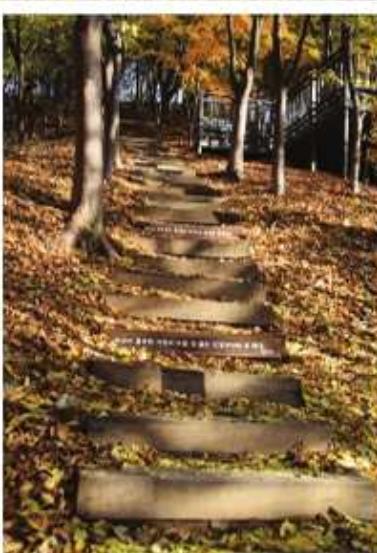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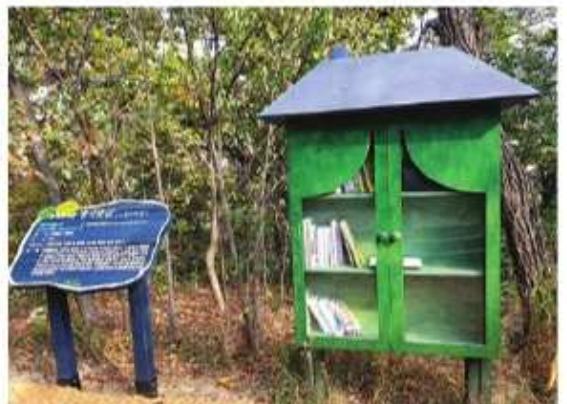


생각숲길



은평구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불광근린공원에 주민들이 책을 통한 여가 활동 및 독서 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인 생각숲길이 조성되었다.

안전을 위한 산책로 정비 후 산책로마다 미니 서가를 비치하여 독서 공간과 각 주제에 맞는 조형물 및 안내판 등이 마련되어 있는 철학자의 길, 시인의 길, 소설가의 길, 음악가의 길, 화가&조형가의 길을 테마별로 체험할 수 있다.



도서관 이야기

STORY OF LIBRARY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 “과학 소통 프로젝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과학 분야의 즐거움을 알깨우고, 관련 학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과학 소통 프로젝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별”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에 온 동물 친구들, 호기심 팡팡! 편사이언스 과학 독서동아리, 지식 쑥 재미 광 초등과학 교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동물 사전, 호기심 과학교실 등이 있다.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은평, 생각숲길 우리동네 숲 이야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은평, 생각숲길 우리동네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차로 운영하였다. “은평, 생각숲길 우리동네 숲 이야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한 독서동아리 ‘아미 숲사랑’을 구성하였으며, 생각숲길 숲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 1관 1단 사업 “현 책, 예술이 되다”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북아트 교육 컨텐츠로 “현 책, 예술이 되다”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나누고 은평도서문화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해 작품을 전시하였다. 연말에는 은평구립도서관 내 로비에서 북아트 작품을 전시하여 도서관 공공의 책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독립 운동사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독립 운동사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다” 프로그램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평소 시간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인문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은평구립도서관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알리는 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참여 기념사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인문독서아카데미 “비교해보는 재미, 文·史·哲 인문학 이야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비교해보는 재미, 文·史·哲 인문학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 문학사의 라이벌’, ‘커피 인문학, 커피의 무엇이 인류를 유혹하는가?’, ‘한국 철학사의 라이벌’ 인문학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도서관에서 평소 섭외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로 문학페스티벌 폐막제 2019 은평도서문화축제 “여름피서, 책을 펴書(서)”



은평구에서 주최하고 은평구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공동 주관하는 2019. 은평도서문화축제 “여름피서, 책을 펴書(서)”를 8월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로 문화융복합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축제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은평구 지역을 아우르는 도서문화축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시인 박준 작가와 의 만남, 어린이 북아트, 패브릭 미스트, 소이캔들 만들기 체험 부스와 과월호 잡지, 기증도서 판매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다문화뜰레랑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 다문화뜰레랑스>의 일환으로 '내가 바로 월드스타', '무지개투어', '찾아가는 다문화 이야기 주머니' 등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풍성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어린이들의 다문화 이해를 돋고 다문화 유아들이 잘 적응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은평구립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색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서울형 북스타트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수령한 영유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놀이 프로그램인 <영유아를 위한 책놀이>, 아빠들과 함께하는 <아빠와 아기가 친해지는 시간, 지금>,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을 위해 할링 시간을 제공하는 <나를 위한 푸드테라피>, 독서 육아 정보 강연 <영유아 부모를 위한 그림책 육아>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육아 정보 강연 및 영유아 놀이가 결들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와 부모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냄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육아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지원 사업: 행복한 나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지원 사업 - 행복한 나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나눔 감수성 및 나눔 가치관을 기질 수 있도록 '나눔+', '어린이 나눔 snow', '자라라! 나눔 씨앗!' 등 직접 나눔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나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물과 물고기의 공생 나눔을 공유하며 독서 응합 나눔 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다양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가치와 메시지를 지역 사회 내에 전달하였다.



9월 독서의 달, <즐거운 그림책 여행>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다문화자료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책과 함께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독서의 흥미를 높이고자 <즐거운 그림책 여행>을 시행하였다. <즐거운 그림책 여행>은 사서와 함께한 4회차 프로그램이며, '틱톡! 일어나세요', '괴물 애절 배우기', '민들레는 민들레', '우리는 친구' 도서를 이용하여 시 창작하기, 2인 1조 컵 쌓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력과 상상력, 창의력, 협동심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로 문학페스티벌 은평도서문화축제 <우리나라 역사 속 전쟁과 평화이야기>, <애니멀 매직쇼>

통일로 문학페스티벌 및 은평도서문화축제를 맞이하여 어린이·다문화자료실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속 전쟁과 평화이야기>, <애니멀 매직쇼>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사 속 전쟁과 평화이야기>는 6.25전쟁에 관한 도서를 함께 읽고, 6.25 전쟁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전쟁과 평화가 가진 의미를 알아보았다. <애니멀 매직쇼>에서는 앤무새, 거북이, 비둘기 등 실제로 동물과 함께하는 마술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지역 문화의 장으로서 도서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관18주년 기념 행사 <알라딘, 신비한 아라비안으로의 여행>

어린이·다문화자료실은 올해 개관 18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신비한 아라비안으로의 여행' 공연을 실시하였다. 알라딘 이야기를 활용하여 화려하고 이국적인 춤과 노래, 미술소 등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디채로운 구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4인 4색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강좌

올해 하반기 월별프로그램으로 4인 4색 작가와의 만남을 지하 1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했다. 김은명 저자를 초빙하여 "영국에서는 어떤 인성교육, 성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김지연 작가의 "작가의 경험과 작품", 사비나미술관 이명옥관장의 "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을 진행하였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강연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 활동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작가-독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12월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9 야간프로그램 <소중한 나를 위한 실버 힐링 원예>

종합자료실은 9월 25일(수), 26일(목), 10월 30일(수), 31일(목) 총 4회에 걸쳐 야간 프로그램 「소중한 나를 위한 실버 힐링 원예」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 증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문화적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니 정원 만들기, 비누 꽃 센터피스 만들기, 틸란드시아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심신 안정과 자존감을 향상을 돋는 기회를 제공했다.

녹번만화도서관

녹번만화도서관 재개관 녹번만화도서관은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민관협치추진사업)으로 진행된 공간개선 공사를 종료하고 10월 17일(목)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녹번만화도서관은 그동안 도서관 이용자 증가로 인한 혈류 공간 부족 문제와 오래된 시설의 방음 및 단열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18년 지역 주민과 함께 서울시 민관협치 추진사업에 “녹번만화도서관의 새날기”를 주제로 계획안을 제출, 최종 선정되어 올해 9월 17일(화)부터 10월 16일(수)까지 공간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새단장 기념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롭게 태어난 도서관을 알리고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말풍선 포토존, 친환경 캐릭터 가방 만들기, 피규어 및 팝업북 전시, 캐릭터 자석 만들기, 페이퍼 토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간개선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녹번만화도서관은 시설개선, 서가 및 이용 공간 확장과 더불어 국·공립 작은도서관 기준 면적을 충족하여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었다. 2020년에는 은평구 내 공공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림마을작은도서관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숲에서 삶을 만나다" 성료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며, 인문학 강의와 탐방을 통해 지역 내에 인문학과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상림마을작은도서관에서는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숲을 통해 인간의 송고함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명과 인생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총 10회에 걸쳐 상림마을작은도서관과 북한산, 백사실 계곡 등지에서 인문학 강의와 탐방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재즈음악회 "자연과 함께 재즈를" 개최

지난 9월 7일(토) 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문화나누미 사업 향유기관'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재즈 페스티벌", "2017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퓨전 재즈 뮤지션 김홍석 재즈듀오의 재즈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What a wonderful world", "Moon river"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팝송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 "빗속의 여인"과 같은 대중음악을 재즈로 편곡하여 연주하였으며,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음악 장르인 재즈를 감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듣고, 음악의 흥겨움과 아름다움을 경험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9 하반기 행사

나눔 그림책 "나눔 보따리" 발간

상림마을작은도서관에서는 (사)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는 2019년 생애주기별 나눔 교육 실행기관 공모사업 "행복한 나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의 일환으로 초등 4~6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눔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나눔 그림책 "나눔 보따리"를 제작, 발간하였다. 이 그림책에는 어린이들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10가지의 나눔 이야기가 들어있으며, 서울진관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공공도서관 등에 기증하였다.



어린이 체험음악교육 "소리야, 놀자!"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 예술팀인 '오르아트'와 함께 오감을 활용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리야 놀자"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소리와 친해질 수 있도록 키트를 활용한 바이올린 만들기, 업사이클링 악기 만들기, 오페스트라 보드 게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동물의 사육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음악과 가까워지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서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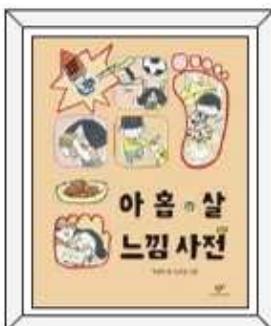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황선우 저
워즈팀하우스
2019

종합자료실
진정민 사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혼자서도 잘 살던 두 여자가 함께 살면서 '너목' 잘 살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혼자 살거나 혹은 결혼하거나, 한국 사회가 주는 양자택일을 벗어나 단짝 친구들이 같이 사는 방식을 택한 두 저자가 마치 교환일기를 쓰듯 번갈아가며 2인 가구의 삶에 대해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혼자는 외로운데 결혼은 싫다면, 친한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면, 2인 가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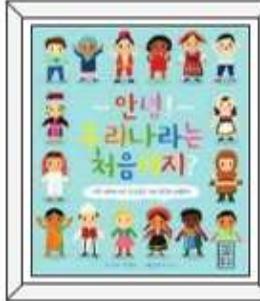


아홉 살 느낌 사전

박성우 저
창비
2019

어린이/다문화자료실
이정은 사서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곳은 학교라고 생각 한다. 학교에는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존재 하며, 그들에게 각자 다가가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이 도서는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부터 상황과 기분에 따른 표현 방법까지 사전처럼 알려주고 있다. 자기 표현에 서투 르고, 의사소통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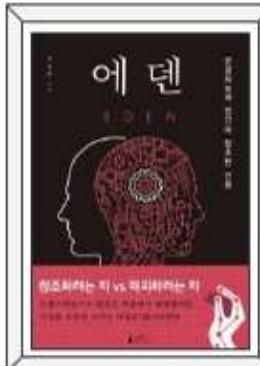


안녕! 우리나라는 처음이지?

모이라 버터필드 저
라이카미
2019

어린이/다문화자료실
최지원 사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타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해 습득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도서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타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허물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도서를 읽고, 세계인들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세계관을 보는 눈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어린이들이 타국의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존중감을 기울 수 있게 독려해 줄 수 있기에 이 도서를 추천한다.



에덴

서석찬 저
텔피노
2019

디지털자료실
김채원 사서

트랜스미션(사람의 뇌와 신체를 인공 뇌와 신체로 교환하는 수술)으로 인간은 죽음에서 해방됐지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렸다.

인공지능(AI)기술이 지금보다 더욱 발달한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에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병들지도, 늙지도 않는 우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고자 스스로 트랜스미션을 선택한다.

가볍게 단념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사람에 대한 과학적 상상이야기, 하지만 현실로 충분히 반영 가능한 영역이라 제법 근사하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 될 것이다. 과학 소설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서로의 마음을 산책 중

자토 글, 그림
시공사
2017

정기간행물실
백다온 사서

흔히 요즘 말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결혼이 인생에서 어렵기만 하다. 결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꺼려지는 게 현실적인 요즘 젊은 세대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 생활을 담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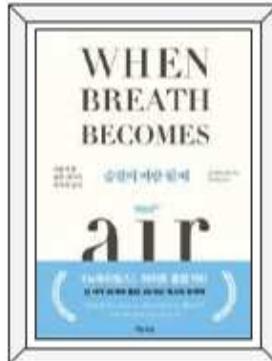
그래서 유부 초밥처럼 두박스러우면서 포근하고 달달한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 같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 우리가 좋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이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각각 부부처럼 그런 안정감과 소박한 행복을 그대로를 잘 담고 있는 책 같다.

까대기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년 오늘의
우리만화선정작

이종철 저
보리
2019

녹번만화도서관
최점임 사서

택배 상자 하나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까대기는 가대기를 발음한 표현으로 창고나 부두에서 인부들이 쌓아마니 같은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썩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또는 그 짐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택배에서는 희불차에 실린 택배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까대기라고 한다. 이종철 작가의 <까대기>에는 은평구를 배경으로 작가가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사연과 우리가 모르는 택배산업의 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너무도 평범하지만 각자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묵직한 마음 속 물림을 느껴보길 바란다.

숨결이 바람 될 때 :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 풀 킬라나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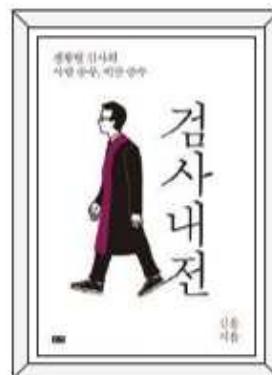
이종인 저
흐름출판
2016

상림마음작은도서관
이수정 사서

매일매일이 너부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삶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

힘들기로 유명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의 끈을 눈 앞에 두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작가는 서른 중반의 나이에 다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가를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야하는 운명을 짚어진게 된다.

폐암의 고통과 점차 다가오는 이별의 슬픔 속에도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의지, 님을 삶을 자신답게, 가치 있게 살아내고자 하는 굳은 자세, 죽음을 대하는 들픈한 마음을 밀지 않는 품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만큼은 '나답게', 후회 없이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검사내전

김웅 저
부기 출판
2018

책단비팀
김용훈 사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요즘이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안개에 가려진 먼 존재들일 뿐이다. 작년에 출간된 「검사내전」은 영화 속 검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검사 일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저자의 고민과 생각을 따라 읽다보면 검사에 대한 안개가 한 커풀 벗겨지며 사회와 법, 검찰과 권력, 국민의 권리 등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있을 것이다.

2019년 도서관 통계

사업 예산 지원 6억7,505만원

과학문화·민간활동지원사업, 도서관 디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 등
총 20개 사업 선정



주요 추진사업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실적

총 25개 공모사업 운영

약 6억8,896만원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
부족한 도서관 문화사업 예산 확보!
다양한 도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욕구 해소

강연 및 공연 등 지원 1,391만원

독립영화공연상영회 운영관 지원사업, NE교실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선정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총 874회 프로그램
10만4천981명
수혜

프로그램 횟수 87회
참여자 수 1천268명

평생교육 사업

프로그램 횟수 559회
참여자 수 17만9천638명

독서교육 사업

프로그램 횟수 228회
참여자 수 2만4천75명

문화교육 사업

도서관 방문 이용자 수

일 평균 이용자 수 **1,8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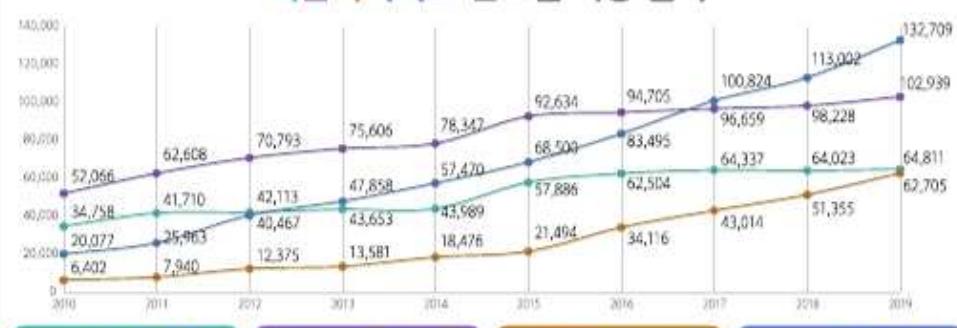
대출 · 반납 수

일 평균 대출권 수 **671권**
일 평균 반납권 수 **670권**

외부반납함 수거 권 수

일 평균 수거 권 수 **153권**

책단비서비스 연도별 이용 실적



책단비
무인대출 **86%**

책단비
무인반납 **98%**

상호대차
대출 **879%**

상호대차
반납 **561%**

LIBRARY
EPISODE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김영관

편집인 양우진 신임방

이정은·전세민

박현철 문광구립도서관

TEI D2 385-1671-6

홈페이지: www.orih.or.kr

1. 인생 이론문학과의 힘

디자인·인쇄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
02.6214.1801



은평구립도서관



도서관 이용안내

은평구립도서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84(불광동)

1-02-385-1671~4

3F 일반열람실	평일·주말 08:00~22:00
2F 열린공간자료실 (디지털자료고讷, 청기간행물고讷)	평일·주말 09:00~18:00
1F 종합자료실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어린이자료실·다문화자료실·유아열람실	평일·주말 09:00~18:00
B1 구내식당	점심시간 11:30~13:30 저녁시간 17:00~18:30

* 흐과이 징기 흐과일: 매주 월요일, 토요일에 제작한 빙정 공유일. 기다 도서관 사장이 의뢰 일시 흐과일



